



한준수

KIA 미래 '동성고 배터리' 지켜보라

1군 합류한 포수 한준수 4경기 10타수 4안타로 공격 본능 보여 1년 후배 투수 김기훈과 출전 기대... "둘이 완봉승 해보고 싶다"

동성고 배터리가 '호랑이 군단'의 미래를 밝힐까?
지난 1일 확대엔트리를 통해서 1군에 합류한 KIA 타이거즈 선수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포수 한준수다.
동성고 출신의 한준수는 2018년 우선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2년 차다. 기회를 기다리던 한준수는 확대엔트리가 적용된 1일 풀업했고,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1군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 전 '긴장된다'며 걱정하던 모습과 달리 한준수는 이날 선발 투수 임기영과 좋은 호흡을 보이며 롯데전 4-2 승리를 합작했다.
한준수에게 기대했던 '공격형 포수'의 모습도 보여줬다.
프로데뷔 타석에서 2루타를 터트린 한준수는 이날 2개의 2루타로 멀티히트를 남겼다. 지난 8일까

지 4경기에서 한준수는 10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한준수는 "운이 따랐던 것 같다. 초구부터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공격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수비에서는 걱정이 많다.
한준수는 "도루 저지를 하기 전에 자신 있게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포구가 편해졌고 블로킹도 자신 있는데 도루 저지가 불안하다. 더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수의 가능성에 주목한 팬들은 또 다른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동성고 1년 후배인 김기훈과 배터리를 이루는 모습이다.
김기훈은 한준수 이후 2019 우선지명 선수로 유니폼을 입은 '고졸 루키'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발 자원으로 키워진 김기훈은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있다. 제구 난조라는 속제가 있지만 목적인 직구는 충분히 프로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두 사람 모두 동성고 입학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대형 유망주'였다. 부진과 부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준수와 김기훈은 나란히 KIA의 1차 지명을 받으며 꿈에 그리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한준수의 합류로 두 사람은 프로에서 함께 뛰는 꿈을 이루게 됐다. 배터리로 공을 던지고, 받는 꿈은 아직 남아있다.
한준수는 "기훈이 1학년때부터 공을 받았다. 잘 할 거니까 기훈이 걱정은 안 된다"며 "남은 경기에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다. 같이 배터리를 할 생각에 설렌다. 둘이 완봉승 해보고 싶다"고 웃었다.
한준수와 김기훈을 조련했던 동성고 김재덕 감독도 "한준수는 공격력이 좋고 수비 때 순간 반응 속도가 빠르다. 눈치도 빠르다. 김기훈은 볼 끝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상대가 알고 들어와도 파울이 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며 "두 선수 모두 KIA의 주축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스승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배터리를 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기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터치 성공! 제28회 회재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렸다. (사)대한산악연맹 주최,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진) 주관으로 열린 대회에서는 난이도·속도, 볼더링 종목에서 승자를 가렸다. 속도 경기에 참가한 한 선수가 혼신의 힘으로 터치패드를 찍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

일본 야구팀 감독 "한국 경제 대상 양현종·김현수"

일본 야구 대표팀 이나바 아쓰노리(47·사진) 감독은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 중 투수로는 양현종(KIA 타이거즈), 타자로는 김현수(LG 트윈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스포츠지 등 현지 매체들은 10일 "아쓰노리 감독이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를 살펴본 뒤 양현종과 김현수를 경계대상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나바 감독은 3일 대전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전을 시작으로 총 4경기를 관전한 뒤 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나바 감독은 오는 11월 개막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에 대비하고 더 나가서는 도쿄올림픽에서 우승을 노리는 일본으로서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큰 경제대상이기에 전력 탐색을 위해 방한했다.
그는 3일 한화전에 선발 등판한 양현종의 투구 모습을 지켜봤는데, 당시 양현종은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1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나바 감독은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의 경기에서 김현수의 모습도 살펴

봤다. 당시 김현수는 2타수 무안타로 부진한 뒤 교체됐다.
이나바 감독은 KBO 리그 경기를 직접 본 소감을 묻는 말엔 "한국 야구를 공격 중심의 야구로 생각했는데, 투수 중심의 야구로 변모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일본이 우승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맨시티, 선수 몸값 최고...사상 첫 10억 유로 돌파

노리치시티가 사용한 돈의 32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선수단 구성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으로 드러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시티는 현재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10억1400만유로(약 1조3365억원)를 사용했다.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노리치 시티가 사용한 돈의 32배에 달하는 액수다.
축구 클럽 선수단 몸값의 총합이 10억유로를 넘

은 것은 맨시티가 사상 최하다.
지난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7000만유로(921억원)를 지불하고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 로드리를 영입했다. 주앙 칸셀루 등 주전급 선수들도 데려왔다.
맨시티 다음으로 선수단 구성에 많은 돈을 쓴 팀은 프랑스 리그1의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이었다.
2017년 8년 네이마르 영입에 역대 최고 이적료인 2억2200만유로(2921억)를 지출했던 PSG는 현재

선수단을 꾸리는데 총 9억1300만유로(1조2013억원)를 사용했다. PSG는 같은 리그 팀 올랭피크르보나 114배의 이적료를 썼다.
3위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9억200만유로·1조1871억원). 같은 리그 팀인 마요르카보다 148배의 이적료를 지출했다.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7억5100만유로·9883억원)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7억1900만유로·9462억원)는 4, 5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평균 이적료 지출은 프리미어리그 3억4500만유로(4540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메라리가와 세리에A가 1억6700만유로(2197억원), 분데스리가가 1억2400만유로(1631억원), 리그 1억1800만유로(1552억원) 순이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산행안내

9월 15일(일)
▲광주벽암산악회 9월 15일(일) 광주 무등산, 09:00 증심사 버스종점 위 김치박물관 앞 ※다음카페 광주벽암산악회 ☎ 010 2425 4300, 010 3604 8589

9월 18일(수)
▲광주청룡산악회 9월 18일(수) 경북 문경 운담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

후문 07:1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2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9월 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9월 21일(토) 충주 남한강길, 비내길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 앞 6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6시20분, 염주체육관 6시30분, 한국병원앞 6시40분, 문예회관 후문 6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7시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9월 21일(토) 지리산 삼신봉/불일폭포/쌍계사,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참조은산악회 09월 21일(토) 지리산 서산대사옛길, 풍암롯데마트7주차장

07:00, 진월동육교 07:10, 교원공제회관 07:30, 비엔날레주차장 07:45 ※다음카페: 광주참조은산악회 ☎ 010-3631-5913, 010-9972-1314

▲광주산사모산악회 9월 21일~22일(토-일 1박2일) 강원도 양구 대암산및 인제 곰배령, 21일 염주 모아레포츠 입구 02:10, 상무 무각사 02:20, 광주시의회 02:25, 운남 21세기병원 02:35, 수안 지하도 위 승강장 02:4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2:50, 비엔날레주차장안 03: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9월 22일(일)
▲광주KJ산악회 9월 22일(일)경남거창, 현성산,금원산,금산행, 염주체육관7:30, 백운우체국7:35, 돌고개7:40, 광주역 7:55, 문예후문8:00, 비엔날레주차장:05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산가족산악회 9월 22일(일) 군산 관리도 섬 트레킹 산행, 염주체육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출 08:00 ※다음카페

매도발

- 금곡동 산아래·시원한바람 통
- 510평 / 주차장 완비 (콘테이너 유치 가능)
- 버스도로에서 60m

☎ 010-3638-1008

사람을 찾습니다

강정호 님, 강금주 님

010-3163-733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님 여러분들의 권리를 받습니다. 상법 제354조, 당사 정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명부를 폐쇄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주총회 일시: 201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2. 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곡포길 12 당사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 회의 사항 제외의 안: 자본금 감소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참석시 준비물

- 1) 직할 행사: 본인 신분증
- 2) 대리 행사: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주주회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 1) 주주 확정 기준일: 2019년 9월 30일
- 2) 주주명부 폐쇄 기간: 2019년 9월 30일 - 2019년 10월 15일

2019년 9월 11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곡포길 12
금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정훈

분할합병공고

대법원적 주주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금양전설(이하 "을")은 2019년 09월 09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장사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고 "갑"의 분할된 전가장사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규정을 붙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회사의 주주들은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9년 09월 11일

"갑" 대법원적 주주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승원동)
대표이사 박진순

"을" 주식회사 금양전설
경상남도 함안군 함창읍 대야로 1204
대표이사 정동진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3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4관	타짜: 원 아이드 잭
5관	힘을 내요, 미스티리
6관	타짜: 원 아이드 잭, 변신
9관	힘을 내요, 미스티리, 헬로카봇, 그것
7관 씨네커를	타짜: 원 아이드 잭, 반지의 비련일기, 그것: 두 번째 이야기
8관 씨네커를	헬로카봇, 유열의 음악앨범, 엑시트, 변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기현진시 그림, 찰나를 담다	8.28~9.29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엔리오 모리꼬네를 위하여	9.19(목) 6:30pm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 앙상블 오데움, 장소의 음악	9.25(수)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김이문의 11시 클래식 신석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10.8(화)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